

한겨레
HANGYERE.COM

한은 "중국 내수 회복세 이어져 한국 수출에 긍정적"

기사입력 2020-08-30 14:04 최종수정 2020-08-30 14:12

대중수출 중간재 포함 75%가 중국에서 소비돼
기계장비·운송기기는 90% 달해 수출 탄력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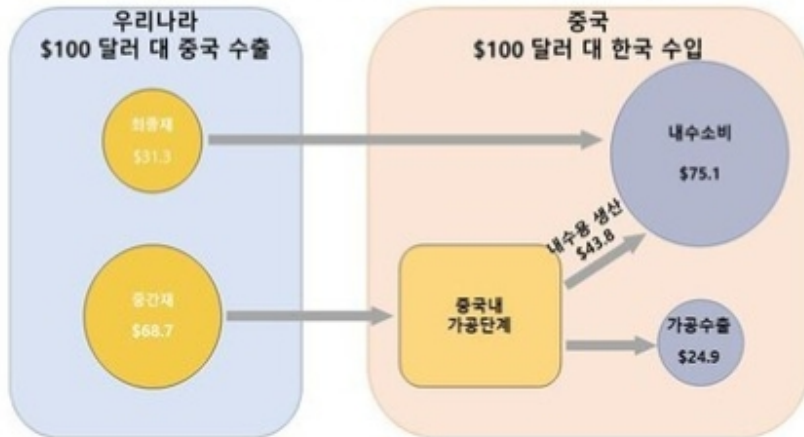
지난 15일 중국 상하이 홍취안루(虹泉路) 한인타운의 상가 건물인 징팅텐디(井亭天地)에 있는 한국식 고기구이 식당들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. 상하이/연합뉴스

한국은행은 중국경제가 하반기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.

한은은 30일 '중국경제의 조기 회복배경 및 지속가능성 점검' 보고서에서 "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민간소비 개선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해 경기회복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"이라고 전망했다. 중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.1%에서 올해 2분기에 5.8%로 확대됐다.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0%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확대에 적극 나

서는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. 골드만삭스는 중국 건설업 노동자의 90% 이상이 농민공으로 추정돼 인프라 투자가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

대중 수출의 최종 귀착지(100\$ 기준)



주요 품목별 대중 수출의 최종 귀착률(%)

	전체	기계장비	운송기기	화학	전자기기
중국 내수	75.1	90.6	89.2	72.3	70.0
중국 수출	24.9	9.4	10.8	27.7	30.0
(對미국)	(5.0)	(1.7)	(2.1)	(5.3)	(6.3)
합 계	100.0				
			100.0		

주: 2014년 자료, 자체시산, 무역협회('19.5월)

※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.

한은은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.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가운데 중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비율(귀착률)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. 세계산업연관표(WIOT·2014년)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, 우리의 대중 수출 중간재(68.7%) 가운데 재수출되지 않고 중국에서 소비되는 비중이 43.8%다. 최종재와 중국 내수로 흘러간 중간재를 더하면 대중 수출 가운데 75.1%가 중국에서 소비되는 것이다. 이 비중은 2009년(64%)보다 11.1%포인트 상승했다. 우리 수출에서 중국 내수의 중요도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. 특히 중국 내수 귀착률이 각각 90.6%, 89.2%에 달하는 기계장비와 운송기기 품목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.

한광덕 선임기자 kdhan@hani.co.kr

- ▶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, 한겨레 구독하세요!
- ▶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 ▶2005년 이전 <한겨레> 기사 보기

[©한겨레신문 :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